



[산업] 삼성 美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 투자 확정 03



Life

[라이프] 역대급 블프 최대 99%↓ 소비자 지갑 열린다 11



청계천엔 자율주행버스, 강남엔 로보택시 서울시, 자율주행 도시 만든다... 2026년까지 인프라 구축

서울시 '자율주행 비전 2030' 발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단계적 확대 2026년 서울 전역에 인프라 구축 세계 5위 자율주행 선도도시 만들 것

이달 말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4월에는 청계천 일대를 오가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순찰·정소·제설 등 도시관리 공공서비스에 자율차가 도입되고, 2026년에는 서울시 전역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준비 현황은 세계 7위(2020년 기준)다. 시민들이 쉽게 자율차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 기술에 대한 불신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복잡한 도심 도



오세훈 서울시장 24일 오전 시청에서 '자율주행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로에서 실증이 부족해 상용화나 산업화가 늦어지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빈틈없는 자율주행 준비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시민들이 쉽게 자율차를 체험하고 탑승할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과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율주행 인프라를 서울 전역으

로 확대해 2026년까지 서울을 세계 5위의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시는 ▲자율차 거점(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이동서비스 상용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정착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율차 기반 도시관리

도입 ▲시 전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는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계획을 내놨다.

우선 시는 현재 상암에서 운영 중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강남(2022년), 여의도(2023년), 마곡(2024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차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화물 등 다양한 영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다. 시는 11월 말부터 상암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자율차 운행을 시작한다.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자율차 6대는 DM C역과 아파트단지-오피스지역-공원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 달간 무료로 운행한 후 내년 1월 중 유료(이용 요금은 약 3000원)로 서비스가 전환된다.

시는 내년 민간과 함께 강남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스마트폰으로 선택해 호출하는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택

시)를 10대 이상 운영할 방침이다.

연간 4000만명이 찾는 청계천에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가 내년 4월부터 운행된다. 이 버스는 청계광장부터 청계5가까지 약 4.8km 구간을 왕복한다.

시는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노선버스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2023년에는 홍대~신촌~종각~흥인지문(9.7km)을 잇는 노선을 신설해 심야에 중앙차로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 2026년에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에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 버스를 100대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 전체 신호교차로 4291개소의 교통신호정보(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은 시간)를 디지털화해 0.1초 단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에 '신한컨소시엄'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내년 1월부터 2년간 판매대행 수행 상품권 결제 방법 다양해져 편의성↑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로 '신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19일 판매대행점 선정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3일 전문가 심사를 열어 신한컨소시엄을 판매대행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컨소시엄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로 구성됐다. 이

들 기관은 4자 공동 이행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2년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사업자인 신한카드는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상품권 판매대행·가맹점 모집 역할을 맡는다. 공동구성원인 신한은행은 상품권 자금관리와 은행거래 연계,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결제환경 구축과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를 지원한다. 티머니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 앱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충전·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한컨소시엄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기존에는 계좌로만 가능했던 상품권 구매가 신용·체크·선불카드까지로 다양해지고, 결제 방법도 현재 QR 촬영 및 바코드 제시 방식에서 양방향 QR결제, NFC결제, 터치 결제로 확대된다.

신한컨소시엄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매출리포트와 동종업종 실적 비교 자료를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매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할인 쿠폰발행, 가맹점 홍보 같은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미세먼지 대응 위한 온라인 토론회 연다

대기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정책 제안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새로운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는 시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융합형 연구를 위해

2019년 5월 설립된 연구협의체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특성 및 정책 제언(이규진 아주대학교 건설교통공학과 교수) ▲서울시 이동오염원 비배기 먼지 발생 연구(전기준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전략과제(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결과와 정책 방향 제언(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특성 및 저감기술 개발 동향(송지현 세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을 주제로 5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한다.

행사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김현정 기자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 개최

서울시는 24일 오후 '다시 뛰는 서울, 글로벌 매력도시로 재도약'을 주제로 '202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이 갖춰야 할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행사는 미국의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글로벌 연사들의

발제 및 특별좌담 ▲세션2(도시에 매력을 더하다): 국내 연사들의 발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은 해외의 시선에서 글로벌 서울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국내외 연사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됐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등 문화·관광·뷰티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이 글로벌 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5일(목) 음력 : 10월 21일

수도권 날씨 0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2 | 해질 / 17:16

지역별 날씨: 인천 -4/7, 동두천 -3/7, 가평 -3/7, 파주 -4/7, 서울 0/7, 양평 -1/8, 수원 2/7, 평택 1/8, 용인 2/7, 백령도 5/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우주선 발사 /사진 뉴시스
▲日,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에 애도 공식 표명

▲'의료 붕괴 위기' 네덜란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중국 '출생신고 회피' 2000년대생 1천160만명 발견



▲北, '오징어게임' 등 韓 드라마 시청 고강도 단속
▲머스크, 도지코인 놓고 바이낸스 CEO와 트윗 설전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